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 속도 낸다

나주시 10월까지 금계동 일원
지장물 철거·정밀 발굴조사
고고학적 조사 위치·구조 규명



나주목 관아 동헌 정비 사업 대상지(나주 금계동 31-1번지 일원).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이었던 '나주목 관아 동헌' 복원을 위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 원도심은 조선시대 관아, 향교, 읍성 등 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으로 통합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0월까지 금계동 일원(금계동 31-1번지)을 대상으로 지장물 철거와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동헌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를 규명할 핵심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헌 복원의 사전단계로 구 금남동 복합청사와 임시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고고학적 조사를 병행한다.

그동안 동헌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계동 일대는 근현대 개발로 지형이 훼손돼 위치 특정이 어려웠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세 차례 정밀 조사를 통해 건물지, 연못, 담장 등 다양한 유구(遺構)를 확인했다.

이번 목 관아 동헌 복원 정비는 2012년 금계매 일지장 철거 이후 진행 중인 나주목 관아 복원사업

의 연장선상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금성관(2002), 서약헌(2005), 동익헌(2007), 연못(2018), 향정(2023) 등을 복원했다.

동헌은 나주목 관아의 핵심 시설로 복원 시 역사적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단순한 유적 정비를 넘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이를 시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발굴과 복원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공동체의 자긍심과 참여 의식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동헌 정밀 발굴 조사는 나주목 관아 복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핵심 열쇠"라며 "유적 보존과 도시 정비의 조화를 통해 나주를 역사·문화 관광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선정

74억 확보...회진면 정주여건 개선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7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공모 당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2025년 초부터 본격적인 재도전을 준비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회진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면밀히 발굴했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장답사, 자료수집, 주민 설명회 개최, 대면 및 현장 평가 준비에 나서

는 등 모든 절차에 공을 들였다.

이번에 선정된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회진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열의가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유치에 뛰어들어 농촌지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관계자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산불 피해목 톱밥 116t 축산농가 제공

자원 재활용·탄소 중립 등 효과

함평군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 116t을 지역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23년 4월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활용해 생산한 톱밥 116t을 최근 지역 한우농가 180가구에 무상 지원했다.

톱밥은 지난해 하반기에 벌채된 38ha 규모의 산불 피해목을 가공해 제작한 것으로, 함평군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수집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 펠릿 100t을 공급했다.

군은 산불 피해목 무상 벌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은 물론,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 지역에 산수유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한편, 관광 사업 자원화에도 힘쓰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산림부산물과 재난 피해목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로컬푸드 레스토랑 '장성한상' 광주에 차렸다

첨단직매장 2층에 문 열어
35종 한식 제공 고급 한식뷔페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최상급의 청정 식재료만을 엄선해 조리한 한식 뷔페형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을 방문해 시식용 요리를 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최상급의 청정 식재료를 엄선해 조리한 한식 뷔페형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을 선보였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한상 한식뷔페'가 지난 3일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층(북구 삼소로 2)에 문을 열었다.

'장성한상은 약 35종의 한식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한식뷔페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3시)만 운영한다.

대부분의 식재료를 장성 지역 약정 농가에서 당일 수확해 공급함으로써 신선도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흑인자치킨 등 특별 메뉴와 계절별 제철 요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총 1026㎡ 규모의 매장에는 한식뷔페존, 과일카페존, 쿠킹클래스 교육장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규모의 좌석은 가족은 물론 단체 손님도 수용이 가능하다. 가격은 성인 1만5000원, 학생 1만원, 미취학아동 6000원이며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다.

과일카페존에선 장성에서 재배한 과일을 활용한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고 쿠킹클래스 공간에선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오는 19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개장 3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장성한상' 정식 개

장식을 열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한상이 건강한 외식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여름철 영농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화순군이 영농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영농 현장 기술지원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지도를 추진한다.

여름철은 폭염·장마·태풍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로 배수시설 정비와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화순군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농업인상담소장과 작목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직접 방문해 핵심 기술을

안내하고, 현장 여건에 맞춘 영농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빈번해지는 기상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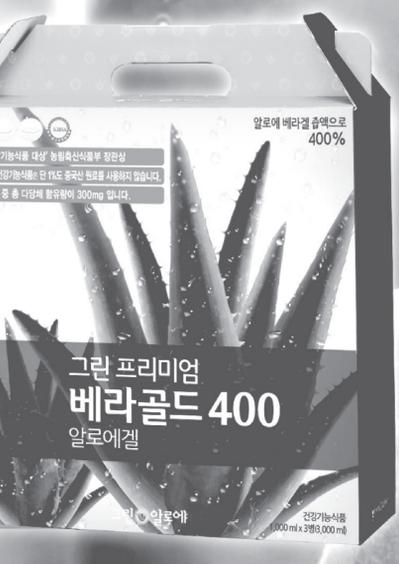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